

宗訓  
忠孝·德禮·勤謹·恭儉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우애하고 덕을 닦고 예의를 익혀 남을 존경하며 부지런하고 공경한 마음으로 성실하고 검소한 삶을 살지 어다

# 清州韓氏報

發行人 韓台洛  
編輯人兼主幹 韓鍾仁  
印刷人 裴成漢  
1976년 11월 1일 창간

## 日新 日日新 又日新, 더 새로운 내일로

### 신년사



한태락 중앙종친회장

존경하는 청주한문의 100만 종원 여러분!

푸른 뱀의 해, 을사년(乙巳年)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2간지 중 여섯 번째인 뱀은 지혜와 통찰력을 상징하는 존재이고, 푸른 색은 번영과 희망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작이자 깊은 성찰과 성장의 해로 힘차게 출발한 을사년을 맞아 국내외 100만 청주한문 모두가 건강하시고 만사형통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갑진년 한 해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친 실로 다사다난한 한해였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탄핵 정국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회복력을 동시에 보여준 사건이었고, 의료계 파업과 대형 사건 사고, 북한 관련 이슈들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안전 및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강대국간의 대립과 충돌, 자국 우선주의로 경제정책의 변화를 표방한 미국 대선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와 외교 정책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 와중에도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청주한문의 영광이자 한국 문화의 저력을 보여주는 위안이었습니다만 일련의 여러 국내외적인 요인들은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난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럴 때 일수록 많은 어려움을 극복한 저력을 바탕으로 심기일전하여

이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국가와 가정에 행운이 상승하는 풍요로운 한 해로 전환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중앙종친회도 대화합의 기틀을 다져 삼한갑족 명문성씨의 위상을 더 높이는 진일보하고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는 한해가 되도록 일가 분들과 함께 3개년 종사과업의 결실을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합 돈독하고 내실을 다지는 종사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종친회는 이해관계가 아닌 한 시조를 근간으로 성과 본이 같은 일가붙이끼리의 모임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는 송조돈목을 가장 큰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어느 조직에서도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는 있습니다만 상반된 견해가 있더라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우선시 되는 종친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해에 중앙회장 선임은 경쟁과 분열이 아닌 대화합의 기반이 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일가분들과 뜻을 모아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배려가 우선시 되는 종친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조부군 및 선조님의 송조 선양사업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청주한씨중앙종친회는 시조 묘소 및 유적의 수호보전과 세향을 병행하며 송조돈종사상을 함양하고 종원의 교양 향상과 도의 양양, 후손에 대한 장학과 계도 및 문화의 창달로 한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청주한문을 대표하는 조직입니다.

지속적인 송조 선양사업 추진과 방정보존회의 노력의 결실로 시조부군의 유서깊은 유적지인 방정의 복원과 공원화사업이 금년도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조부군의 탄생지 터를 매입하여 생가를 복원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함과 동시에 더 나가 강당터 복원

을 목표로 실행 추진기구 조직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이 완공되면 충북 청주권의 조선 8대 명당 중 으뜸으로 손꼽히는 시조묘역을 중심으로 무농정, 방정, 시조제단비가 있는 청주한씨역사공원에 이어 영동권의 청한각, 강당터 등 시조부군의 생애 활동 유물과 유적등을 성역화하고 벨트화하여 일반인은 물론 우리 청주한문 후손들이 즐겨찾고 탐방하는 관광명소화 권역으로 구축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선조님의 유적과 시설물 또한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감은 물론 시조부군을 위시하여 선조님의 세향 및 제례 봉행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무수한 역사적 문헌과 전례로 우리 청주한씨의 원류인 마한태조무강왕릉이라는 사실이 자명한 익산시 석왕동 소재 사적 제87호인 익산 쌍릉의 대왕릉과 소왕릉의 수호 보전에도 강력한 수단과 방법 등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사업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이자 인간을 가장 인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며 개인과 국가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우리는 뜻을 하나로 모아 선대로부터 계승된 위업과 고귀한 유지를 받들고 거듭나 한문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후손들을 훌륭한 인재로 육성하고 국가의 동량으로 키워 그 명성을 더욱 빛낼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훌륭한 후손을 육성하는 장학사업은 우리가 수행해야 할 많은 종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으뜸사업의 하나이자 활성화해야 할 선결과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주한문의 위상에 걸맞는 장학재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장학기금을 확충하고 내실있는 운영으로 청주한문의 인재를 양성함에 더 많은 값진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조직을 정비하고 조직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종친회는 종파종친회와 행정구역상의 광역시도종친회를 중심으로 조직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종파문종과 광역시도 조직이 유명무실하거나 조직이 없는 단체도 있습니다. 조직을 재건하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지원하고 특히 우리 종사를 이끌어갈 청장년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조직운영의 내실화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 합니다. 이를 통해 종사 참여의 폭을 다양한 계층으로 넓히고 활성화함으로써 종사발전을 도모하고 운영재원 조달 및 기금적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일가여러분!

금년도에도 어려운 제반 여건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어두웠던 기억들은 털어버리고 희망을 갖고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명문가문의 후예라는 자랑스러운 긍지를 고취토록 동기를 부여하고 청주한문이 대화합하고 한단계 더 도약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중앙종친회가 구심체 역할을 하는데 역량을 집중 하겠습니다.

일가여러분!

2025 을사년의 푸른 뱀의 해는 우리에게 발전의 기회를 가져다 주는 동시에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계획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가분들이 꿈꾸던 도전과 큰 변화를 이제 용감히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의 성패는 결국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것입니다.

일신 일일신 우일신, 청주한문의 더 새로운 내일로 우리 함께 나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5년 을사년 새해  
청주한씨중앙종친회장 한태락

# 2024년 甲辰年 시조 위양공부군 세향 봉행

## 전국 각지에서 800여명의 후손 참사

초헌관 台洛중앙회장 · 아헌관 南錫절제공파 · 종헌관 廣洙양해공파회장



좌로부터 태락(초헌관), 남석(아헌관), 광수(종헌관)

중앙종친회(회장 台洛)는 지난 11월 1일 (음력 10월 1일, 금요일) 오전 11시 세일재 경내에서 시조부군의 갑진년 세향을 경건하고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에 위치한 시조부군 묘역(충북기념물 제72호)에서 제례를 봉행할 계획이었으나 당일 오전 예보에 없던 갑작스런 우천으로 세일재 경내로 변경하고 비가림 텐트 등의 준비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집행부의 조속한 조치와 전국에서 참사한 800여명의 후손분들의 협조속에 질서정연하게 행사를 마쳤다.

초헌관에는 태락(台洛)중앙회장, 아헌관에는 남석(南錫)절제공태양광대표, 종헌관에는 광수(廣洙)양해공파회장, 축관은 기학안동종친회장이 각각 분방되었으며 동권제전위원회수석부위원장의 집례로 봉행하였다. (제관 분방 별향)

태락 중앙회장은 세향봉행에 앞서 진행된 식전행사의 인사말을 통해 오늘 시조부군의 세향봉행일을 맞아 비가오는 날씨임에도 경향 각지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많이 참사해주신 일가분들을 뵙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땀과 노력으로 풍요로운 수확의 결실로 조상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다. 오늘은 음력 상달 10월 초하루 날로 고려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할 때 큰 공을 세워 문화태위에 오르시고 삼중대광개국벽상공신에 녹훈되신 시조 위양공부군의 세향을 봉행하는 뜻깊은 날이다. 우리 청주한문은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고 자타가 공인하는 삼

한갑족이자 명문거족이다. 시조 위양공부군께서는 후삼국 통일에 큰 공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후학 양성에도 크게 공헌하신 분이다. 시조께서 탄생하신 난곡리에는 청한각과 강론터가 있고 주된 활동을 하신 청주에는 무농정, 방정, 제단비 등 문화유적과 유산이 곳곳에 보존되어 있다. 오늘 시조부군의 세향일을 맞아 방정복원 및 주변 공원화사업이 2027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2025년도부터 본격 추진이 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린다. 이 사업이 완공이 되면 영동의 청한각과 청주의 여러 유적지를 벨트화하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될 것이다. 방정은 고려태조 왕건이 후백제 견훤을 정벌하기 위해 청주지역을 지날 때 시조부군께서 군량미와 함께 음용수를 제공하신 우물이고 또 참전하여 승리의 디딤돌을 놓는 등 탁월한 예지력을 발휘하신 역사적으로 의미가 큰 유적지이다. 시조부군의 묘소는 전국 8대 명당 중 으뜸인 곳으로 훌륭한 후손들을 배출한 길지 중의 길지이다. 조선조에 수많은 상신과 공신, 대제학을 비롯해 수백의 문과급제자 등 걸출한 인재를 배출하였고 6분의 왕비와 부마 등 왕조와도 친인척의 연을 맺었다. 정부수립 이후 역사에 유례가 없는 3연속 국무총리를 배출하였고 현 정부에서도 덕수총리가 두 번에 걸쳐 요직을 맡아 국가 발전에 헌신하고 있으며 당대표, 장관 등 국가와 사회 전반에 걸쳐 중추적인 역할로 이바지하며 청주한문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국가 인재가 배출될 것으로 확신하고 또 실현될 수 있도록 화합돈목하고 뜻을 하나로 모아 뒷받침 하는 것이 후손의 책임이자 종사과업이다. 내년에는 전국의 남녀노소 더많은 일가분들이 함께 세향에 참석하고 송조돈종의식을 함양하는 대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금년 한 해 남은 기간도 잘 마무리하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비가오는 관계로 불편함이 있지만 시조부군 및 4위 선조님의 세향 봉행이 엄숙하고 원만하게 봉행될 수 있도록 일가분들께서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갑수명예회장은 참사해 주신 일가분들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고 감사하다. 오늘 비가 내리고 있다. 비는 물이고 물은 생명의 원천이다. 오늘



시조부군의 세향을 엄숙하게 봉행하고 있다



비가오는 가운데 후손분들이 질서정연하게 참사하고 있다

시조부군 세향일에 비가 내림은 일가여러분께 여러 가지 생명의 원천이 되는 기운을 주고 축복을 내려주는 큰 의미로 생각된다. 만사 원만하게 성취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종사운영과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태락회장과 집행부에 큰 힘으로 성원해 주시고 종사운영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명문 청주한씨의 긍지와 위상을 더욱 높여 주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우리 청주한씨의 시조(諱 蘭)는 고려 태조 왕건(王建)이 서기 918년 고려를 건국하고 이듬해 평양을 정치기반으로 삼기위한 첫 사업으로 평양성 축조의 막중한 소임을 맡아 태조의 기대에 부응하여 신뢰를 쌓았고, 928년(태조 11년)에 후백제의 견훤(甄萱)을 정벌하기 위해 청주지역을 지날 때 10만 정벌군에게 군량미를 보급했을 뿐만 아니라 종군까지 하여 전공을 세운 공로로 최고의 품계인 삼중대광개국벽상공신(三重大匡開國壁上功臣)에 녹훈되었고, 벼슬은 정일품 문하태위(門下太尉·국무총리급)에 올랐으며 한 시대의 사표로서 훌륭한 이름을 남기시

고 서세하시여 지금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에 안장되시니 나라에서 위양(威襄-천지는 신묘(神妙)한 위광(威光)으로 강산의 기이(奇異)함을 만들고 영웅(英雄)의 자품을 타고 나서 나라의 훈업을 이루었다)이라는 시호(諡號)를 받았다.

충북 영동군 황간면 난곡리(永同郡 黃澗面 蘭谷理)에서 당대의 위인으로 탄생한 시조 위양공(威襄公)께서는 일찍이 청주로 이주하여 방서동(方西洞)에서 용개(龍開)평야를 개척, 큰 부호가 되었으며 무농정(務農亭·1990년 12월 14일 충북기념물 제85호로 지정)을 세워 향학(鄉學)을 일으켰다.

시조부군의 묘는 배위 송(宋)씨와 합조(合兆)이다. 가산(駕山) 남쪽 건좌손향(乾坐巽向)이며 속리산이 갑방(甲方)인고로 이르기를 회룡고조(回龍顧祖)라 하여 길지라한다. 중간에 실호되어 후손들이 단을 쌓고 비를 세워 세일제를 받들기도 하였다. 잘못된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고 자손이 있으면 반드시 조상을 찾게 마련이다.

(3면으로 계속)

# 4위 선조 갑진년 세향 봉행

## 시조묘역 내 세일재 경내에서



4위(2세·3세·4세·5세)선조의 세향을 봉행하고 있다.

지난 11월 1일(음 10월 1일, 금) 시조부 군 세향 봉행에 이어 세일재 경내에서 2세, 3세, 4세, 5세선조를 추모하는 4위 선조의 갑진년 세향이 동권제전위원회수석부위원장의 집례로 질서정연하고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제관분방 별항)

당일 세향을 봉행한 4위 선조는 시조 하 2세 용호군 교위공 휘 영(龍虎軍校尉公 諱 穎), 3세 별장 동정공 휘 상휴(別將 同正公 諱 尙休), 4세 상의 직장공 휘 혁(常衣 直長公 諱 奕), 5세 신

호위 상장군 휘 희유(神虎尉 上將軍 諱 希愈)이다.

4위 선조는 오랜 풍상과 겹치는 세란(世亂)으로 오직 휘자(諱字)와 직함만이 보책(譜冊)에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을 뿐 유택(幽宅)이 실전(失傳)된 연도도 알 수 없었고 배위(配位) 또한 실전되어 성(姓)씨마저 전해지지 않아 1985년도부터 시조묘역 내 세일재 좌편에 4위단을 모시고 매년 시조 세향일에 세향을 봉행하고 있다.

# 제전위원 및 전국 청장년 일가 등 20여 명

## 세향 준비 및 진행 자원봉사

800여 명의 후손들이 참가한 2024년도 갑진년 시조세향 및 4위 선조 세향이 차질 없이 질서정연하게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엄숙하게 봉행될 수 있었음에는 사전 준비와 세향 당일의 안내, 질서유지 등 진행을 도운 20여명의 제전위원 및 서울, 경기 등 각 지역과 종파문중의 일가들과 일부 임원들의 열성적인 자원봉사가 있었다.

중앙회 집행부의 지원을 받은 20여명은 세향일 하루 전에 현지로 내려가 재실에서 숙박을 하면서 세향이 끝날 때까지 청소 정리 및 천막설

치, 예복관리, 명부작성, 차량 출입관리 및 잡상인 통제, 접수대 설치 및 헌성금 접수, 시조세향 예행연습, 행사 후의 정리 정돈 등 사전 준비와 진행, 마무리를 위한 업무를 분담하여 차질 없이 행사가 끝날 수 있도록 봉사함으로써 집행부와 일가들로부터 많은 격려와 칭송을 받았다.

### 자원봉사 일가

성익, 일용, 근준, 시근, 동권, 종수, 윤수, 강섭, 갑전, 의전, 명덕, 도영, 현수, 기학, 택영, 동학, 명섭, 동후, 희민, 복연, 석준, 순자, 상분, 금순, 희숙, 수지 (무순직함생략)

# 시조세향에 110명, 2,608만원 헌성

## 태락회장 300만원 절제공파종중 200만원 갑수명예회장 100만원 등

지난 11월 1일에 봉행된 시조 세향에 비가오는 날씨임에도 태락회장 300만원, 절제공파종중(회장 연구) 200만원, 갑수명예회장 100만원, 의구제전부회장 100만원, 양혜공파종

중(회장 광수) 100만원 등 110명의 일가들이 2,608만원의 성금을 헌성하였다.

헌성해주신 일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헌성한 일가분들 내역 별항)

제관 분방	
시조	4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初獻官 : 台洛 중앙종친회장</li> <li>• 亞獻官 : 南錫 절제공태양광대표</li> <li>• 終獻官 : 廣洙 양혜공파회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初獻官 : 萬吉 장헌공파회장</li> <li>• 亞獻官 : 明浩 부산영도회장</li> <li>• 終獻官 : 哲鎬 대구경북부회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執禮 : 동권 제전위수석부위원장</li> <li>• 謁者 : 의전 제전위원</li> <li>• 司樽 : 종수 제전위감사</li> <li>• 左奉 : 동후 참판공파반월회장</li> <li>• 右奉 : 희민 제전위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大祝 : 기학 안동종친회장</li> <li>• 陳設 : 명덕 제전위총무</li> <li>• 左奠 : 갑전 서울청장년회장</li> <li>• 右奠 : 명섭 참판공파</li> <li>• 執事 : 기학 제전위원</li> </ul>

### 사무처

- 접수·도기 : 康燮(참판공파) 是根(종무부장) 鉉洙(참판공파) 인숙
- 앰프관리 : 成益(문정공파회장)
- 예복관리 : 順子(부녀부장) 相分(청장년회)
- 안내·질서 : 제전위원

### <2면에 이어>

숙종 14년(1688) 묘하에 고용되던 한모(韓某)가 탐문한 바 그 동네에 사는 모(某)인이 공의 산소를 파헤치고 묘갈을 동강내어 우물바닥에 묻고 산소 전 후면에 투장하였다는 정보를 후손 성헌(聖憲)에게 고하니 성헌이 다시 청주병사 근(根)에게 제보하여 조사한 바 중절된 비(碑)의 자획(字劃)이 완연함에 공묘임을 확인하고 이듬해 후손 성우(聖佑), 형(溟), 숙(塾) 등이 제소하

여 확인을 얻고 광중(曠中)을 열어보니 지석(誌石)이 발견되어 다시 묻고 개봉 축하여 표석(表石)도 세웠다.

묘비는 숙종 30년(1704)에 개수(改堅)하고 신도비(神道碑)는 영조 44년(1768)에 세웠다. 비문은 후손 좌의정 익모(翼謨)가 짓고 형조판서 광회(光會)가 썼으며 한성좌윤 덕필(德弼)이 전(篆)했다. 묘소와 신도비는 1987년 3월 31일 충청북도 기념물 제72호로 지정되었다.

# 제7회 씨알의 날, 조상으로 모두 하나가 되었다

## 태락중앙회장 아헌관으로 헌작

지난 10월 10일, 배달개천 5921년, 단기 4357년, 제7회 씨알의 날 행사가 종로구 인왕산로에 위치한 단군성전에서 엄숙하게 개최된 가운데 태락중앙회장이 삼선사령 중 문서를 관장하는 사관(史官) 아헌(亞獻)으로 조상님들께 술을 올렸다.

(사)한국뿌리문화보존회와 한국성씨총연합회가 주최하고, 씨알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씨알문화축제는 7회를 거쳐오면서 여러 장소에서 개최되었지만, 지난해에 이어 국조 단군께서 모셔져 있는 성전에서 치를 수 있었다는 것에는 한민족 씨알의 맥을 제대로 잇는 것을 의미하며, 막혔던 물길이 뚫어져 비로서 큰 물길을 이루는 의미와 같은 것이라는 각별한 의미가 있고, 각 성씨의 시조를 상징하는 위패 60여 위를 봉안하고, 환웅천왕의 배달국 관제인 삼선사령의 의미를 활용하여, 천지인 모두가 하나 되는 의식을 치른 것이 이번 행사의 핵심이라고, 석민영 씨알의날 대회장이 인사말을 통해 전하였다.

배달국의 삼선사령에는 토지를 다스리는 우관팽우(虞官彭虞), 문서를 관



태락중앙회장이 아헌으로 잔을 올리고 있다

장하는 사관신지(史官神誌), 곡식을 관장하는 농관고시(農官高矢) 삼선이 있으며, 명령(행정안전)을 맡은 풍백지제(風伯持提), 질병(보건복지)을 다스리는 우사옥저(雨師沃沮), 선과 악(문교)을 가름하는 운사수기(雲師守己), 형벌(법무)을 관장하는 뇌공숙신(雷公肅愼) 사령이 있다.

# 장순왕후 564주기 기신제 제향 봉행

1월 14일 화요일, 파주 공릉에서



공릉(장순왕후 능) 전경

예종대왕비(睿宗大王妃) 청주한씨 장순왕후(章順王后, 1445년 2월 22일(음력 1월 16일)~1462년 1월 5일(1461년 음력 12월 5일)의 제564주기 기신제 제향이 지난 1월 14일(화)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89 공릉(恭陵)에서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주최, (사)전주이씨대동종약원 공릉봉향회 주관으로 엄숙하게 봉행되었으며 문열공파종중의 도영회장이 아현관으로 봉무하였다.

예종(睿宗)의 정비인 장순왕후는 상당부원군 충성공(上黨府院君 忠成公 諱 明澮)과 황려부부인 민씨(黃驪府夫人 閔氏)의 셋째 딸로, 16세 때인 1460년 세자빈(世子嬪)으로 간택되어 당시 세자였던 예종과 가례를 올리고 부부가 되었으며 정숙한 성품에 아름다운 용모로 시아버지 세조의 총애를 받았다. 책봉 이듬해인 1461년 음력 11월

30일, 왕실의 적통인 원손(인성대군)을 낳았으나 같은 해 음력 12월 5일 녹사(錄事) 안기(安耆)의 집에서 산후병으로 향년 17세로 요절했다.

시호는 휘인소덕장순왕후(徽仁昭德章順王后)이며 장순은 온순하며 너그럽고 아름다우며 어질고 자애롭다는 뜻을 담고 있다.

능호 공릉(恭陵)은 능 아래쪽의 홍살문에서 정자각에 이르는 길인 참도가 7자로 꺾여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참도는 원래 직선으로 만들지만 자연 지형에 어울리게 조영한 것이며, 조선 왕릉 중 참도가 꺾인 곳은 공릉, 정릉 그리고 다소 조성 내역이 다른 단종의 장릉 등이다. 한편, 파주삼릉(공·순·영릉)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순릉에는 장순왕후 자매 공혜왕후(恭惠王后, 성종의 원妃)가 모셔져 있다.

# 안순왕후 527주기 기신제 제향 봉행

1월 9일 목요일, 서오릉 창릉에서

예종대왕 계비 안순왕후(安順王后, 1445년 4월 18일(음력 3월 12일) ~ 1499년 2월 3일(1498년 음력 12월 23일)의 527주기 기신제 제향이 지난 1월 9일(목)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창릉(昌陵)에서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주최, (사)전주이씨대동종약원 창릉봉향회 주관으로 양혜공파문중에서 참사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창릉(안순왕후 능) 홍살문과 향로와 어로

예종의 계비인 안순왕후는 청천부원군 양혜공 한백륜(淸川府院君 襄惠公 韓伯倫)과 서하부부인 임씨(西河府夫人 任氏)의 딸로, 왕세자 시절 예종의 세자빈이었던 장순왕후가 1461년에 요절하자, 1462년 세자빈에 간택되었고 1468년 예종이 즉위하면서 왕비에 책봉되었다.

1469년 예종이 보위에 오른 지 13개월 만에 흥서하자 원자(元子)인 제안대군의 보령이 어리다는 이유로 예종의 형이었던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인 잘산군(堧山君: 성종)이 예종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고 인혜대왕비(仁惠大王妃)로 존호를 받았다. 소생으로는 효

성이 지극한 제안대군(齊安大君)과 현숙공주(顯肅公主)가 있었으며, 1498년 음력 12월 23일 경복궁에서 승하하여 창릉에 안장되었다.

시호는 인혜명의소희제숙안순왕후(仁惠明懿昭徽齊淑安順王后)이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인 창릉(사적 198호)은 서오릉에 조성된 최초의 왕릉으로 왕릉과 왕비릉은 동원이강식(同原異岡式)을 이루고 있으며, 석물(石物)의 배치는『국조오례의』의 예에 따랐다. 고석(鼓石)의 문양과 석난간(石欄干), 대석주(大石柱)의 주두양식(柱頭樣式)이 특이하다.

# 문정공(휘 계희) 542주기 기신제 봉행

울동공원 내 문정사 영모재에서

지난 9월 21일(음 8월 19일) 오전 11시부터 문정공파종중회(회장 성익) 주관으로 성남시 울동공원 내 문정사 영모재에서 60여명의 후손이 참석한 가운데 문정공 542주기 기신제를 봉행한 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성익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기가 불순함에도 많이 참석해주신 종원분들께 감사함을 전하고 종사발전을 위해 더 큰 관심과 성원을 당부하였다. 종호전 영흥공파회장의 집례로 엄숙하게 봉행된 기신제는 초헌관에 상현영흥공파회장, 아현관에 동춘공간공파회장, 종헌관에 전옥천공파회장, 축관에 양형통례공파회장이 분방되어 봉행하였다.

기신제 봉행 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전년도 수입·지출 결산(안)과 2024-2025년도 중무계획 및 수입·지



문정공부군 기신제 봉행

출 예산(안)을 가결하였으며 주요 의결건으로는 재실의 전통찻집 용도 변경 추진의 건과 사당건축 분담금 미수금 처리, 불법 입보 종원의 처리 건 등을 의결하였다. (문정공파종중 성익회장)

# 감찰공(휘 기) 갑진년 세향 봉행

문열공파종중 도영회장 선임



감찰공부군 세향 봉행 기념

지난 11월 3일(음 10월 3) 문열공파종중회(회장 기천) 주관으로 시조 하 13세 감찰공(휘 기)부군의 갑진년 세향이 약 30명의 후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초헌관에 기천회장, 아현관에 태교 일가, 종헌관에 현희일가, 축관에 경택

일가가 분방되어 도영총무의 집례로 의정부에 소재한 공의 묘전에서 엄숙하게 봉행이 되었다.

감찰공부군은 문열공(휘 尙質, 12세)부군의 아드님이고 충성공(휘 明澮)부군의 부친으로 사헌부 감찰을 지내셨고 대

광보국 승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겸 영경연사 상당부원군에 추증되시었다.

제례 봉행 후 개최된 문열공파종중 정기총회의 임원개선을 통해 도영

신임회장을 선임하였으며 인숙(충성공파), 명수(이양공파)일가를 신임 감사로 선임하였다.

(문열공파종중 도영회장)

# 중앙종친회 회장단회의 개최

## 시조부군 생가터 매입 및 재원 조달방안 등 논의



태락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앙종친회(회장 태락)는 지난 12월 5일 오전 11시 길수, 동경, 진수회장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회 회의실에서 회장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종사 중점과업 추진 및 현안문제와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2024년도 주요 경과 및 종사운영 현황과 방정복원 및 주변 공원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에 이어 중점 추진 과업으로 추진 중인 시조부군의 생가터 매입 및 재원 조달방안 실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태락 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가운데에도 많이 참석해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회장단 분들께 감사함을 전하고 회장단 분들의 고견을 받들어 종사를 운영하면서 청주한문의 화합과 돈목을 통해 종사발전을 도모하고 명문 청주한문의 긍지를 더욱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통해 시조부군의 생가터 매입하여 생가를 복원하고 편의 시설 등을 확충하는 성역화사업 추진을 의결한 후 사업추진을 위한 15인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추진 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우선적으로 부지매입과 재원 조달 실현 방안을 중점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결의하였다.

### 실무추진위원 15인

- 종파문중 8인 (삼재 동회회장, 양해공과 광수회장, 찬성공과 유광회장, 절도공과 탁근회장, 절제공과 연구회장, 회양공과 규백회장, 검참공과 진수회장, 이랑공과 노동방정보존회 사무국장)
- 광역시도 3인 (부산시 동경회장, 대전시 갑수회장, 서울시 상락회장)
- 집행부 4인 (삼랑수석부회장, 근준부회장, 일용부회장, 종수부회장)

# 장학회 2024년도 제2차 이사회 개최

##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제2차 장학회 이사회

(재)청주한씨장학회(이사장 태락)는 지난 11월 25일 태락 이사장을 비롯해 이사 및 감사와 장학후원회장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회 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의안 심의와 장학재단의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2024년도 주요 사업실적 보고에 이어 2025년도 주요 사업계획 및 예산(안)과 지난 1년간 출연 받은 장학기금 중 4,400만원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기본재산을 37억 9,100만원으로 증자하는 정관변경의 건을 가결하였으며, 임원 개선을 통해 임기가 만료된 선교 감사의 연임을 의결하였다.

태락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사회에 많이 참석해 주신 임원분들께 감사함을 전하고 훌륭한 후진양성을 위해 장학재단의 기금확충 등 장학사업을 활성화하고 과실소득 또한 증대할 수 있는 수익사업 실현방안을 중점사업으로 적극 검토 추진하여 청주한문의 위상에 걸맞게 이끌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밝히고 임원분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하였다.

◆ 장학기금 출연 및 기부금 계좌 안내  
국민은행 009901-04-171067.  
예금주 (재)청주한씨장학회

# 서원군파종중회 이사회 개최

## 서원사 부지 매입 및 명의 이전 등 논의



서원군파종중회 이사회

서원군파종중회(회장 길수)는 지난 12월 21일 11시 종로 3가 소재 한일옥에서 길수회장, 만교, 근준회장 등 임원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고, 서원사 부지의 명의 이전에 따른 문제와 비용 조달 방안 등을 논의한 후, 향후 진지한 논의와 연구를 통해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서원사부지 확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해 나가기로 결의하고 위

원 6인을 선임하였다.  
길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쌀쌀한 날씨임에도 많이 참석해 주신 일가분들께 감사함을 전한 후 삼한갑족이며 훌륭한 서원군선조님의 후예답게 매사 모범적으로 행동하고 한문의 명예를 이어갈 후손들의 나갈 길을 잘 같이 닦아 힘차게 밀어주어 국가의 동량으로 육성하고자 당부하였다.  
(서원군파종중회 길수회장)

# 정당공파 강릉종친회 정기총회 개최



정기총회 기념

정당공파 강릉종친회(회장 승우)는 지난 12월 25일, 2024년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승우회장은 지난 2년 5개월 간 회장의 직을 수행하는 동안 물심양면 성원

해주심에 감사함을 전한 후, 덕망있는 차기 종친회장께서 종사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강릉종친회 승우회장)

운영회비(9~12월)		단위:원
이름	금액	
광옥 고문(서울 강남)	100,000	
승희 고문(서울 송파)	100,000	
태락 중앙총회장	3,000,000	
덕규 부회장(공안공파 회장)	1,000,000	
일용 부회장(참판공파 회장)	1,000,000	
상길 부회장(충정공파 회장)	1,000,000	
정민 부회장(정해공파 회장)	1,000,000	
상우 부회장(질경공파회장)	1,000,000	
임개 부회장(몽계공파회장)	1,000,000	
상기 부회장(참의공파 회장)	1,000,000	
만교 부회장(장도공파 회장)	1,000,000	
재국 부회장(판사공파 회장)	1,000,000	
광수 부회장(양해공파 회장)	1,000,000	
동희 부회장(삼재관리위원장)	1,000,000	
근준 부회장(조직부회장)	500,000	
만준 부회장(경남총회장)	500,000	
장훈 부회장(충북총회장)	500,000	
동경 부회장(부산총회장)	500,000	
광식 부회장(울산총회장)	500,000	
응구 부회장(제전부회장)	500,000	
영오 부회장(광주총회장)	500,000	
격동 부회장(충남총회장)	500,000	
동수 자문위원 (경기 반월)	400,000	
근수 자문위원(충남 청양)	200,000	
철호 자문위원(전남 영광)	200,000	
정식 자문위원(제주 서귀포)	200,000	
현섭 겸임이사(경기 시흥)	200,000	
종인 겸임이사(서울 종로)	200,000	
인섭 겸임이사 (경기도 광명)	200,000	
인수 겸임이사(서울 노원)	200,000	
상복 겸임이사(충북 충주)	200,000	
의전 겸임이사(경기 양평)	200,000	
상욱 겸임이사(경북 경산)	200,000	
시근 겸임이사(경기 인천)	200,000	
윤구 겸임이사(충북 청주)	200,000	
영일 겸임이사(서울 서초)	200,000	
상욱 겸임이사(전북 고창)	200,000	
종남 겸임이사(전남 광주)	200,000	
상엽 겸임이사(전북 남원)	200,000	
상돈 겸임이사(충남 공주)	200,000	
병천 겸임이사(전북 임실)	200,000	
병호 겸임이사(전북 전주)	200,000	
석우 겸임이사(경기 용인)	200,000	
재수 겸임이사(경북 칠곡)	200,000	
동엽 겸임이사(광주 북구)	200,000	
종남 겸임이사(광주 서구)	200,000	
웅석 겸임이사(전남 영광)	200,000	
일식 겸임이사(경북 대구)	200,000	
성욱 겸임이사(서울 강북)	100,000	
진수 겸임이사(인천 강화)	100,000	
영수 운영위원(경기 김포)	100,000	
금섭 운영위원(충북 충주)	100,000	
만구 운영위원(충북 충주)	100,000	
상철 운영위원(광주 서구)	100,000	
덕원 운영위원(경남 창원)	100,000	
상억 운영위원(서울 영등포)	100,000	
상훈 운영위원(전남 광주)	100,000	
종연 운영위원(전남 광주)	100,000	
재림 운영위원(제주시 제주)	100,000	
인희 운영위원(경기 고양)	100,000	
상관 운영위원(경북 대구)	100,000	
대수 운영위원(충북 충주)	100,000	
상기 운영위원(전남 영광)	100,000	
상현 운영위원(광주 광산)	100,000	
익희 운영위원(전남 영광)	100,000	
건석 운영위원(전남 영광)	100,000	
연섭 운영위원(전남 영광)	100,000	
<b>합계</b>	<b>25,500,000</b>	

일반찬조헌성금(9~12월)		단위:원
이름	금액	
태락 중앙회장	5,500,000	
추태 상임고문	5,000,000	
길수 자문위원	3,000,000	
심량 수석부회장	1,000,000	
재철 제전위원장	1,000,000	
대전총회장(회장 갑수)	1,000,000	
검교참판공파총회(회장 진수)	1,000,000	
응구 부회장(서울 용산)	1,000,000	
동경 부회장(부산총회장)	1,000,000	
참의공파 총지공파(회장 근준)	1,000,000	
상진 장도공파(경기 군포)	100,000	
국(대전)	100,000	
갑수 부회장(대전총회장)	100,000	
상락 부회장(서울시총회장)	100,000	
대석(부산)	100,000	
동경 부회장 (부산시총회장)	100,000	
영호 부회장(안양공파 회장)	100,000	
<b>합계</b>	<b>21,200,000</b>	

개인총보비(9~12월)		단위:원
이름	금액	
절제공파 총중(회장 연구)	300,000	
기설(서울 강동)	300,000	
근준 부회장(경기 김포)	100,000	
심량 수석부회장	100,000	
준석(경남 양산)	100,000	
이순(서울 용산)	100,000	
근수 자문위원(충남 청양)	100,000	
금석(서울 강동)	100,000	
창수 겸임이사(제주도 서귀포시)	50,000	
상목(경남 고성)	50,000	
조정(서울 마포)	50,000	
응배(강원 춘천)	50,000	
상훈(전남 여수)	50,000	
태우(경기 부천)	50,000	
상운(서울 송파)	50,000	
삼봉(경북 울산)	50,000	
영태(경기 용인)	30,000	
양섭(전남 화순)	30,000	
길호(경기 수원)	30,000	
원렬(전북 완주)	30,000	
영수 운영위원(경기 김포)	30,000	
일용 (경기 남양주)	30,000	
수연(서울 마포)	30,000	
순열(서울 도봉)	30,000	
유순(서울 강남)	30,000	
희순(충북 진천)	30,000	
수희(충북 충주)	30,000	
대삼(제주시 제주)	30,000	
영석(경남 합천)	30,000	
상욱(전북 고창)	30,000	
정웅(서울 송파)	30,000	
총수(충북 진천)	30,000	
동호(서울 성북)	20,000	
상협(경기 시흥)	20,000	
찬희 (서울 종로구)	20,000	
두현 (대구시 북구)	20,000	
기업(경남 사천시)	20,000	
준석(경남 하동)	20,000	
재술(전북 김제)	20,000	
규덕(부천 원미구)	20,000	
상길(충남 태안)	20,000	
상태 (인천 강화)	20,000	
정식 자문위원(제주 서귀포)	20,000	
명규(경기 고양)	20,000	
석봉(서울 관악)	20,000	
덕수(서울 시흥)	20,000	
만중(강원 원주)	20,000	
재연(서울 성동)	20,000	

상기 부회장(참의공파회장)	20,000
인희 운영위원(경기 고양)	20,000
상관 운영위원(경북 대구)	20,000
면희(서울 서초)	20,000
영태(경기 용인)	20,000
기영(강원 강릉)	20,000
영태(경기 용인)	20,000
옥동(서울 영등포구)	10,000
<b>합계</b>	<b>2,550,000</b>

단체총보비(9~12월)		단위:원
이름	금액	
삼재관리위원회(회장 동희)	500,000	
울산총회(회장 광식)	200,000	
광주총회(회장 영오)	200,000	
공주총회(회장 수)	200,000	
순천총회(회장 석수)	100,000	
청주총회(회장 현구)	100,000	
진해총회(회장 성기)	50,000	
<b>합계</b>	<b>1,350,000</b>	

시조시향헌성금(11월)		단위:원
이름	금액	
갑수(명예회장)	1,000,000	
태락(중앙회장)	3,000,000	
절제공파총중(회장 연구)	2,000,000	
의구(제전부회장)	1,000,000	
양해공파총중(회장 광수)	1,000,000	
청한산악회(회장 삼량)	500,000	
찬성공파총중(회장 유광)	500,000	
장한공파총중(회장 만길)	500,000	
월포공파총중(회장 영동)	500,000	
삼재관리위원회(회장 동희)	500,000	
회양공파총중(회장 규백)	300,000	
충성공파총중(회장 선교)	300,000	
청한예학회(회장 의구)	300,000	
청주 절제공파 승의랑총중(회장 윤구)	300,000	
청장년회 일동	300,000	
청원위파총중(회장 상영)	300,000	
철호(대구경북 부회장)	300,000	
참의공파 안산총중(회장 승은)	300,000	
질경공파총중(회장 상우)	300,000	
장훈(충북총회장)	300,000	
서원군파총중(회장 길수)	300,000	
심량(중앙회 수석부회장)	300,000	
부산총회(회장 동경)	300,000	
문경공파총중(회장 동수)	300,000	
몽계공파총중(회장 대관)	300,000	
대구경북총회(회장 국선)	300,000	
광주총회(회장 영오)	300,000	
현섭(제전위원회부회장)	200,000	
평해공파 수원총중	200,000	
평택 한목회(회장 상희)	200,000	
충주총회	200,000	
참의공파 총지공파총중(회장 근준)	200,000	
제주총회(회장 만수)	200,000	
장도공파총중(회장 만교)	200,000	
인천시총회(회장 천식)	200,000	
윤수(침정공파 회장)	200,000	
순재(중앙회 부녀부장)	200,000	
서울총회(회장 상락)	200,000	
상인(몽계공파)	200,000	
삼길(충성공파 가종리)	200,000	
부산 영도구총회	200,000	
문정공파총중(회장 성익)	200,000	
문양공파총중(회장 석희)	200,000	
참판공파총중(회장 일용)	200,000	
도봉 강북총회(회장 대석)	200,000	
대전총회(회장 갑수)	200,000	
기학(경북 안동)	200,000	
경기도총회(회장 이덕)	200,000	

격동(충남총회장 회장)	200,000
검교참판공파총중(회장 진수)	200,000
강원도 원주총회	200,000
판사공파 사직공파총중(회장 경)	150,000
임개(몽계공파)	150,000
희숙(제전위원회 재무)	100,000
황(문양공파총중)	100,000
평간공파총회(회장 윤동)	100,000
판사공파총중(회장 재국)	100,000
태호(경기 인천)	100,000
태일(세계한씨연맹 회장)	100,000
총의공파총중(회장 찬규)	100,000
천동(여명공파)	100,000
참의공파 청양총중(재권)	100,000
참의공파 나주총중(상용)	100,000
진주총회(회장 영대)	100,000
정당공파 계열총회(회장 복교)	100,000
점수(광주 북구)	100,000
전남 나주총회	100,000
인속(중앙회 장학부장)	100,000
울산총회 (회장 광식)	100,000
우석(영광 참의공파)	100,000
여수총회(회장 상숙)	100,000
안산 대일총중(동후)	100,000
시근(중앙회 총무부장)	100,000
성교(몽계공파)	100,000
상현(충성공파)	100,000
상분(청한산악회 총무)	100,000
삼등공파 총중	100,000
삼괴총회	100,000
부천시총회(회장 승호)	100,000
봉사공파총중(회장 상필)	100,000
문열공파총중(회장 기천)	100,000
문양공파 울진군회(회장 연희)	100,000
문간공파총중(회장 석구)	100,000
목사공회 정부파(회장 흥수)	100,000
명덕(제전위원회 총무)	100,000
만길(광주총회)	100,000
마포총회	100,000
대석(부산시)	100,000
달섭 자문위원(중앙회)	100,000
노림익상총중(회장 문희)	100,000
노동(이조정랑공파)	100,000
김포시총회(회장 규백)	100,000
기형(시복시정공파)	100,000
기성(경기 용인)	100,000
근수(청양 참의공파 고문)	100,000
국(세계한씨연맹 부회장)	100,000
구미총회	100,000
광진구 성동구총회(회장 수창)	100,000
광전(경기도총회 상임고문)	100,000
관악총회(회장 삼량)	100,000
공간공파(회장 동춘)	100,000
검참공파 사복시정공파총중	100,000
강화군총회(회장 영선)	100,000
갑전 (청장년회장)	100,000
영남(참의공파)	50,000
수희(충주 운영위원)	50,000
상우(판사공파)	50,000
명수(몽계공파)	50,000
덕우(옥천공파)	50,000
기평	20,000
성국(절제공파)	10,000
<b>합계</b>	<b>26,080,000</b>

**중앙총회 계좌번호 안내**

◆ 회비·헌성금·총보대  
 국민은행 009901-04-016841  
 예금주 청주한씨중앙총회

# ‘청주 방정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방향’ 학술토론회

## 방정 복원 및 관광자원 활용방안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



학술토론회 개최 기념

지난 1월 10일(금), 청주한씨방정보존회(회장 한도환)가 주최하고 호서문화유산연구원(이사장 박상일)의 주관으로 청주 방정(方井)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향후 보존 방향에 관한 학술토론회가 중앙종친회장을 비롯 전국에서 참여한 문중과 종친회, 지역 주민 등 약 8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룬 가운데 청주도시재생센터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청주 방정(方井)은 충청북도 문화재로써, 방정 복원 및 주변 정비사업을 위해 청주한씨 방정보존회가 (주)현석종합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여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술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개최하게 된 학술토론회는 청주한씨방정

보존회 한도환 회장의 개회사, 청주한씨 중앙종친회 한태락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호서문화유산연구원 박상일 이사장의 주제발표와 토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박상일 이사장은 “문화유산이지만 현재 방치돼 있는 청주 방정을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고 합리적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고려시대 청주한씨 시조 한란의 역할 등 스토리텔링을 입히고 우물의 원래 가치인 음용과 용수가 가능한 문화유산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태락 중앙종친회장은 고려시대 태조 왕건과 청주한씨 시조인 한란(韓蘭)과의 관계와 활약상을 밝힌 후 청주한씨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유서

가 깊고 가치가 큰 방정은 필히 복원하여 보존을 해야만 하는 사업이다. 더 나아가 청주한씨와 청주시가 함께 역사문화 관광벨트로 명소화하는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관계자분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적극 성원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연지민 문화예술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옛 우물은 유럽의 광장과도 같은 개념”이라며 “광장 문화를 우물과 연결하면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김호성 전KBS 아나운서는 “이번 복원사업의 시작도 끝도 물이라면 서 그 옛날 작은 바위 아래있던 그 우물이 환생하듯 되살아나야 한다”며 방서동 새뜰마을 사업과 방정복원 사업이 잘 연계돼 이뤄진다면 고층 아파트 속에 숨겨진 ‘깊은 산속 웅달샘’ 같은 전국 최고의 골목 산책 코스가 될 수 있다.”복촌한옥마을 만큼 경쟁력 있다.”고 주장했다.

한천구 청주대 명예교수는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방정(方井)의 랜드마크 방정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한흥구 전충북도 토지정보과장은 방정의 복

원 및 주변 공원화 사업은 청주시와 함께 하는 청주 관광지 연계 프로그램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방정 복원을 위한 재원확보, 재산관리를 제시했다.

끝으로 한노동 사무국장은 ‘방정을 복원하여야 할 당위성과 연못을 복원해 방정에서 흐르는 물을 연못과 연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천년의 가치는 어느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유산이며, 또한 방정은 청주한씨의 뿌리를 되찾는 자존심으로 역사와 가치를 복원해 과거와 현재, 미래의 연결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청주 방정은 청주의 대표적 성씨인 청주한씨 시조의 활약상과 마을의 내력을 알 수 있는 유서 깊은 우물로 1990년 충청북도 기념물 제84호에 지정됐다.

(청주한씨방정보존회 한노동사무국장)



방정 복원 및 주변 공원화사업 조감도(안)

## ‘장헌공 한효순 연구’ 학술토론회 개최

청주한씨 장헌공 한효순 성남시 향토문화유산추진청원위원회(위원장 한만길)가 주최하고, 성남지역 역사인물을 발굴 연구하고 선양사업에 앞장서서 역사적 정체성 찾기에 진력하고 있는 성남문화원(원장 김대진)이 후원한 제14회 학술토론회 ‘청주한씨 장헌공 한효순 연구’가 지난 10월 24일 성남아트센터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학술토론회에서는 분당구 서현동에 묘소가 있는 장헌공(莊獻公) 한효순(韓孝純, 1543~1621)이 임진왜란 때 국난 극복을 위해 세운 공적과 여진족 침입에 대비한 병서(兵書) 저술 등 국가안보를 위해 세운 업적 등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 자리로, 태

장, 관우 관공공파회장, 리우, 경동, 계선, 길우 전 회장 등 후손 180여명과 성남문화원 정재영, 이형복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만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효순 할아버지께서는 임진왜란 당시에 3도 체찰부사로서 이순신 장군에게 병선을 만들어 보급하고, 격군을 모아 주고, 식량과 무기를 차질없이 공급해 주어 승전을 하였고, 이순신 장군으로부터 감사의 서신을 받은바 있다.

왜적을 격퇴하기 위하여 명나라 지원군 1만 5천명이 서해안에 주둔하였을 당시 외교 접반사로 활동하면서 군량미 지원과 전략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임진왜란 초기 영해부사 재직시 영해전투에서 왜군의 침략을 막고 행정체계를 경상 좌도와 우도로 재편하



학술토론회 개최 기념

여 운영한 장계를 보고받은 선조 임금께서 ‘나라에 사람이 있구나’ 하시며 크게 기뻐하셨다 하였다.

평안감사 및 함경감사 재직시에는 여진족의 침략을 막기 위하여 기미책으로 방어하였으며, 청나라 전신인 후금과의 우호적인 외교 노선은 최근에 광해군과 함께 재조명 되고 있다.

저서로 우리나라 최초의 병서인「신

기비결」과「진설」은 군사 교범으로 사용토록 하여 국방력 강화에도 앞장서신 할아버지의 업적은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많은 교훈이 되고 성남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 애써 성원해주시는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

(280호에 계속)

(장헌공파중증 권우충무)

# 소설가 한강, 한국인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



소설가 한강

청주한문의 소설가 한강일가가 지난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열린 2024 노벨상 시상식에서 우리나라 작가 최초로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수상작 채식

주의자)하는 큰 영광을 안았다. 노벨상 시상식은 관례에 따라 각 분야 선정기관 대표가 공식 시상 연설을 통해 그해 수상자를 무대 위로 호명하는데 한강은 한림원 맛손위원의 호명과 부문별 시상 순서에 따라 네 번째로 무대 위로 올라가 스웨덴 국왕에게 노벨상 메달과 증서를 받았다.

스웨덴 작가이자 한림원 위원인 엘렌 맛손은 이날 '2024 노벨상 시상식' 문학 부문 시상 연설에서 한강의 작품 세계를 흰색과 빨강, 두 색(色)에 비유했다.

"흰색은 그녀의 많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눈(雪)으로 화자와 세상 사이 보호막을 긋는 역할을 하지만, 슬픔과 죽음의 색이기도 하다"면서 "빨간색은 삶, 그리고 한편으로는 고통과 피를 의미한다"고 짚었다. 지난 10월 스웨덴 한림원은 한강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하면서 선정 이유로 "역사의 트라우마에 맞서는 동시에 인간 생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시적인

산문"을 꼽은바 있다.

한편 한강소설가는 지난 2016년에 아시아와 한국인 최초로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맨부커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당시 수상작도 '채식주의자'로 트라우마(강한 충격을 겪은 뒤 나타나는 정신적인 질병)를 지닌 한 여자가 폭력을 거부하기 위해 극단적인 채식을 하는 이야기로, 심사위원장을 맡은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 문학 선임 기자 보이드 톰킨은 "잊히지 않는 강력하고 근원적인 소설"이라며 "아름다움과 공포가 기묘한 조화를 이룬다" "서정적이면서도 통렬한 작품"이란 찬사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후 2017년 소설 '소년이 온다'로 이탈리아 말라파르테 문학상, 2018년 '채식주의자'로 스페인 산클레멘테 문학상 수상, 2023년 도에는 제주 4·3 사건을 다룬 '작별하지 않는다'로 프랑스 메디치 외국문학상을 수상하며 또 한번의 '한국인 최초' 타이틀을 거머쥐기도 하였다.

한강은 "문학은 체온을 품어 문학을

읽고 쓴다는 건,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것과 같다"고 시상식 후 열린 연회에서 이같은 수상소감을 밝혔으며 "우리가 태어난 이유, 고난과 사랑이 존재하는 이유 등은 수천 년 동안 문학에서 제기돼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머무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인간으로 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가장 어두운 밤에는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묻는 언어가 있다. 이 언어는 사람들과 생명체의 일인칭 관점을 상상하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1970년 11월 광주에서 태어나 연세대 국문학과를 졸업한 한강일가는 '아제 아제 바라아제' 등을 집필한 소설가 한승원의 딸(양해공과 36세)로, 소설가로 이름을 알리긴 했지만 시로 등단한 작가로 1993년 계간 '문학과 사회' 겨울호에 당선된 이후, 이듬해 서울신문에 단편 '붉은 달'이 당선돼 소설가로 활동을 시작했다.

## 운동회장, 경기도지사 인증패 수여

### 봉사활동 5천시간 이상

운동평간공파회장(사진)이 지난 11월 26일, 김포시자원봉사센터주관으로 '시민과 함께 자원봉사로 통(通)하는 행복도시 우리김포'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제27회 김포시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적인 자원봉사 5천시간이상을 실천하고 활동한 우수봉사자로 훈격(동자봉이)되어 경기도지사의 인증패를 수여 받았다.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하는 행사에서 인증패를 수여받은 운동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5,000시간 이상의 꾸준한 자원봉사를 수행해오고 있으며, 지난 2022년도에는 김포시장의 표창을 받은바 있다.



운동회장 부부

김포시자원봉사센터는 2024년도에 코로나19로 중단된 '참! 좋은 사랑의 밥차, 가족봉사단, 사랑의 집수리'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했으며, 자원봉사자의 전문역량 강화와 자긍심을 높이는 김포시자원봉사자대학을 개설해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다.

## 진희(鎭熙)일가, 해군 준장 진급

한진희(사진, 장간공파 총의공종중, 33세)일가가 지난해 하반기 군장성정기인사에서 해군 준장으로 진급하여 일가와 지인분들의 많은 축하를 받았다.

1998년 해군사관학교를 졸업(제52기, 국무총리상 수상)한 진희 준장은 (1975년생, 경기도 평택) 부친 상훈(相勳)일가의 2남 2녀 중 차남이며, 슬하



한진희 준장

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군부대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투력을 증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한다고 진급 인사 시 밝혔다.

(총의공파종중 무희총무)

## 육종가 한치복이사장, 동탑산업훈장 수상

지리산하동산초사회적기업 육종가 한치복이사장(양해공과 34세)이 지난 11월 1일 임업과 산촌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임업인의 성과를 조명하는 제5회 임업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최고 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모두가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 잘 살고 걱정없는 임업인'을 주제로 개최된 본 행사에서, 대규모 재배가 가능하고 수확량이 높은 산초나무 품종 개발·보급에 일생을 바쳐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한 한치복이사장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최한 '종자분야의 장영실상'으로 불리는 '제19회 대



동탑산업훈장 수상 기념 (좌측 한치복이사장)

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에서 신품종 '한초10호'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바 있다.

### 중앙중친회 계좌번호 안내

- ◆회비·헌성금·종보대  
국민은행 009901-04-016841 예 금 주 청주한씨중앙중친회
- ◆인터넷족보 수단금  
국민은행 009901-04-016854 예 금 주 청주한씨중앙중친회
- ◆장학기금 출연기부금  
국민은행 009901-04-171067 예 금 주 (재)청주한씨장학회